

## “ 행동하는 사랑 ”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감상적인 사랑을 넘어 악과 구별된 진실한 사랑을 로마서 1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면〉(필라스투게)는 형제사랑(필리아)과 가족사랑(스톨게)의 합성어로 형제를 가족처럼 사랑하라 한다. 그리스도인은 종족, 국적, 직업, 교육, 부가 어떠하든지 한 가족이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존경하기를 먼저하며〉사랑엔 존경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높이는 마음이 존경이다. 존경하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존경하되 먼저 하라 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심이 사라진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젊은 자는 장로에게 순복하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한다. “두고 봅시다” 할 때는 이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전쟁터의 군인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도와 줄 사람이 많았는데 잠깐 늦추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사랑의 수고 없이 다른 기적은 바랄 수 없다. 수치 중 가장 큰 수치는 게으른 생활이다. 부지런한 것이 성도의 삶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이 말은 성령으로 뜨겁게 끓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은 사람은 성령으로 끓게 되어 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무슨 일이든 감당케 된다. 미지근한 것은 주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셨다. 이처럼 사랑엔 열심히 있어야 한다. 주를 섬기는 일은 열심을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는 것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소망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임으로 그 소망 때문에 성도는 즐거워한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즐거워했다. 대개 불신자는 과거는 미화하고, 현재는 고통스럽다 하고, 미래는 절망적이라 한다. 그러나 신자는 과거엔 멸망의 자식이었으나, 현재는 감사가 총만하고 미래는 약속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전자는 갈수록 태산이지만 후자는 갈수록 희망적이다.

〈환난 중에 참으며〉환난을 만날 때 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이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구원)을 이루신다 했으니 참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나는 운동 경기를 실패중계보다 재방송 보기를 좋아하다. 결과를 알고 보는 시청자는 가슴조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슬아슬할 때 더 스릴을 느끼며 그러나 이기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이루신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기도하되 숨을 쉬듯 항상 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은 “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다. 해석상 난해 구절이다.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면해 달라 하신 기도를 하셨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죽을 지경의 고통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다. 그 고통은 “남의 죄를 지시는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을 잊기 위한 또는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실 만큼 천사가 시중드는 응답의 표시를 받으시고도 다시 우리를 위한 기도를 힘써 하셨다. 이것이 성도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도자의 황금률이다.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는 않지만 교회는 더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꼭 스티커가 있는 자리를 확인하시고 되도록 주위 분과 간격이 가깝지 않도록 앉아 주시고, 대화는 꼭 필요한 때에만 일정거리를 유지하시며,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침, 발열 등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건강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때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227\\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227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안용근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내 백성을 위로하라 ”

### ■ 사 40:1-5

오는 화요일 3.1절 103주년을 맞이합니다. 가난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문화강국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침략 범죄 인정을 받아내지 못하고 남북분단이라는 비극 속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휴전선 너머 형제자매들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들읍니다. 또한 라오스와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의 그리스도인들은 극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조국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절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로 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우리의 거룩한 의무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 1. 희망을 말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절망으로 가득한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606, 597, 587년 세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때 선지자들이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도 해방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 다. 희망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바벨론에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참담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언제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대하여 듣지 않고 계산다는 생각이 그들을 더 절망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제 징벌의 시간이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비판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의 시기를 종식시키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는 위로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 2.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심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사 2:22)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문명의 힘과 기술과학, 정치권력과 돈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 3.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1절과 9절에서 밝혀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 큰 소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에서 있는 우리에게 책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을 위한 노력입니다. 바벨론에 살던 포로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유혹은 바벨론 종교로 전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에 굴복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포기한 행동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끝내 거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종교를 거부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한 분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란 것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상처받고 절규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다’며 치유, 회복, 위로를 전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김익환 목사	양춘경 장로
II 오전 11시	전재홍 목사	차도훈 장로
III 오후 2시	조동수 목사	조동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	사 30:18... 인도자
기 원 Invocation .....	인도자
* 찬 송 Hymn .....	4(4)... 다함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99(나라사랑1)... 다함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함께
기 도 Prayer .....	말은이
찬 송 Hymn .....	66(20)...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사 40:1-5... 인도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함께
봉헌 Offering .....	다함께
* 봉헌송 Offering Hymn .....	634(70)... 다함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도자
찬 양 Anthem .....	찬양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함께
설 교 Sermon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	586(521)... 다함께
* 축 도 Benediction .....	설교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함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	다함께
성 시 .....	시 100:1-3 ..... 인도자
찬 송 .....	73(73) ..... 다함께
기 도 .....	김대훈 집사
찬 송 .....	270(214) ..... 다함께
성 경 .....	행 16:11-18 ..... 인도자
강화금 수여식 .....	말은이
찬 양 .....	찬양대
설 교 ... “강권하시는 은혜” ...	설교자
* 찬 송 .....	597(378) ..... 다함께
* 축 도 .....	설교자
* 주기도송 .....	다함께

##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곤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김애리 권사 II부: 서정현 권사  
성 경 ..... 행 16:19-40 ..... 인도자  
찬 양 ..... 찬양대  
설 교 ..... 주예수를 믿으라 ..... 설교자

##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김익환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 모 임

- 순결서약식 사전 교육 / 27일(주일) 오전 11시 101호
- 바울선교회 월례회 / 27일(주일) 2부 예배 후 101호
- 디자인팀 월례회 / 27일(주일) 오후 1시30분 802호
- 권사회 월례회 / 27일(주일) 3부 예배 후 801호

### ☛ 알 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 장 레
- 故 황무익 권사(9교구 임명숙 권사의 모친, 한상준 집사의 장모) / 2월24일(목) 별세, 2월26일(토)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교회학교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 교회 예배 공간이 방역수칙 조건에 충분하고 철저한 사전 방역으로 안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원하시는 주일 각부 예배에 언제라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89명	452명	2,141명	418명	1,940명



## 희망의 창문을 열어라

희회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삶이란 불행의 연속이라 한다. 자기 욕망이 충족되지 못할 때 오는 불만과 충족되었을 때 오는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 한다. 이처럼 비관주의적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은 하나도 없다. 수준미달의 정치인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가진 자들, 늘어만 가는 외채, 비교육적 교육 현실, 정도를 이탈한 종교인들 모두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요 절망스런 것들 뿐이다.

그래도 세상은 아름답고 살 만하며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낙관적 생각을 갖고 보아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나라엔 오염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좌절보다는 창문을 열고 희망의 빛을 보고 일어서야 할 때다.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